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5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제 39호)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 (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전지방기상청

2025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 (제 39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벚꽃으로 보는 기후변화
- 07 / 봄철 산불 예방, 강풍과 건조 정보로부터
- 09 / 봄의 불청객, 우박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키기
- 11 / 재난 대응의 시작, 호우 긴급재난문자
- 13 / 다가오는 폭염 속,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5 /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6 /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7 /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47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51 / 2025년도 식물계절관측(봄꽃) 현황



© Pixabay



서비스

53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54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5년 5월 30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박연화(기획운영과), 장은석(예보과), 임나영(관측과), 김현정(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기창(기후서비스과),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연직(관측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효원(관측과)

남민우(관측과), 박민규(관측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상용(예보과), 박성진(관측과)

박현진(기후서비스과), 박형진(예보과), 백승우(예보과), 백은희(기획운영과), 이정섭(관측과)

이지훈(기후서비스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임나영(관측과), 장은석(예보과), 최경연(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명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최근
봄철 날씨 변화에 따라
벚꽃 개화 시기 변동성
커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모두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새싹이 움트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을 맞이하는 봄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봄이 되면서形形色색의 여러 가지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설렘을 전하는데, 그중에서도 흐드러지게 피어나 거리를 분홍빛으로 가득 채우는 벚꽃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벚꽃이 만개하면 전국 각지에서 벚꽃축제가 진행되고, 사람들은 꽃잎이 떨어지기 전 그 짧은 봄의 찰나를 즐기기 위해 곳곳으로 나들이를 떠난다. 그런데 최근 봄철 날씨 변화에 따라 벚꽃 개화 시기도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벚꽃축제를 주최하는 지자체 등은 축제 개최 시기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만발한 벚꽃을 기대하며 축제장을 찾은 상춘객들은 기대와 다른 풍경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평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기후변화의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맞는지, 당장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곤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양상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봄철 벚꽃 개화 시기에 관한 관측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의 벚꽃 개화일은 3월 30일로 평년(1991~2020년) 4월 4일 대비 5일 빨랐고, 최근 5년(2020~2024년)의 개화 시기도 평년 대비 평균 9일 빨라졌다. 이렇게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이유는 봄철 평균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이 같은 현상은 벚꽃뿐만 아니라 매화, 개나리 등 봄철을 대표하는 여러 꽃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봄은 어떤 모습일까?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고탄소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는 것과 함께, 봄이 2월 10일에 시작되고 그 길어도 80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벚꽃 개화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봄나들이 시기를 고민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 기후변화의 신호이며, 기후변화에 대비하라는 지구의 메시지가자 경고일 수 있다. 우리가 이 경고를 간과한다면, 기후위기는 점점 위협적인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지방청은 지역민들 가까이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알리고자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해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운영 중이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글을 깨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동영상도 준비돼 있어 연령대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콘테스트'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립충남기상과학관을 운영해 누구나 기상·기후 과학에 대해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홍성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충남기상과학관은 '한반도의 기후환경', '사람과 기후'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전시가 구성 되어 있으므로, 방문해 본다면 기후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올해는 벚꽃이 지각하거나 서둘러 오지 않고 제때
피어나 모두가 활짝 핀 벚꽃을 보며 봄을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기상청은 매년 벚나무, 매화 등의 발아와 개화,
만발을 관측하고 전국 주요 벚꽃 군락 단지 13곳의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나들이를 계획
한다면 더 완벽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따스한 봄날, 벚꽃잎이 흐드러진 거리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 우리 앞에 놓인 이
계절을 더욱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봄철 산불 예방, 강풍과 건조 정보로부터

대기의 흐름이 급격히 변,
강한바람과 건조한 날씨,
산불 위험 증가하는 시기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움츠렸던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대지는 점차 생기를 되찾으며
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마주한 온기가 유독 반갑지만, 봄은
따뜻함만을 선물하는 계절은 아니다. 대기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매년 이맘때면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사라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봄철은 대기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기이다. 겨우내 축적된 찬 공기가 약해지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자주 밀려들면서, 두 기단의 힘겨루기로 기압 차이가 커진다. 이에 따라
강한 바람이 자주 불며,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특정 지역은 바람과 함께 대기가
건조해지며 산불의 위험이 커진다. 대표적인 예로 뽕새바람과 양간지풍이 있다.

뽕새바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편 현상이다.

늦은 봄에서 초여름 사이,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날 때 차고 습한 북동풍이 불게 된다.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단열적으로 가열되어, 영서 지방에는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뽕새바람 탓에
영서 지방은 대기가 메마르고, 산불이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커진다.

양간지풍은 강원도 양양과 간성(지금의 고성) 사이에서 불어오는 국지적 강풍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통과할 때,
남서풍이 태백산맥으로 유입되며 발생한다. 그리고 이 바람은 산 정상 부근에 역전층이
형성되면, 바람이 산맥과 역전층 사이를 지나 침강하면서 더욱 강한 바람을 만든다.
양간지풍에 의해 영동 지방은 더욱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산불이 급격히 번지기 쉬운 조건이 형성된다.

또한, 봄철 이동성 고기압이 지날 때는 기온은 올라가고 상대습도는 낮아져 대기가 더욱
건조해진다. 건조한 대기는 산불 발생의 빈도를 높이고,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봄은 강풍과 건조함이 겹쳐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큰 계절이다.
따라서 봄에는 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이 강풍과 건조한대기에 미리 주의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강풍특보와 건조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경보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표된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14(경보 21), 산지는 17(경보 24) 이상 지속되거나, 순간 풍속이 20(경보 26), 산지는 25(경보 30) 이상 불 때 발표된다. 특보를 참고하면 산불 위험도를 미리 알고 일상 속에서 조심할 수 있을 것이다.

강풍특보와 건조특보를 통해 산불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기상청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제공해 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불은 기온, 습도, 바람의 변화에 따라 확산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 하고자 노력 중이다.

특히,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 기상관측차량이나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기상요소들은 산불 진화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해다

특보를 참고하여 건조한 날씨에는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고, 강풍이 부는 날에는 작은 불씨도 쉽게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심한다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올봄에도 건조와 강풍에 대한 상황과예상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 예방과진화를 도울 것이다. 강풍과건조한날씨에 맞서 함께 노력하여, 우리 모두 산불 피해 없이 따스한 기운을 마음껏 느끼며 안전하고 행복한 봄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봄의 불청객, 우박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키기

우박은 크기가 매우 다양,
특히 봄부터 가을 사이에
자주 발생

따스한 햇살 아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하며 봄의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나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봄을 한껏 즐겨본다.

하지만 봄이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풍경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불청객 '우박'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한다. 우박은 작은 콩알만 한 것부터 야구공만 한 크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발생 빈도는 낮지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농작물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주먹만 한 크기의 커다란 우박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일상을 헤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현상인 우박은 무엇일까.

눈의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 지상에 떨어지는 지름 5mm 이상의 얼음덩어리로,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얼음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박은 대기 불안정으로 생성된 적란운 속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는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승해서 적란운이 형성되면, 내부의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간 수증기가 과냉각된 물방울과 만나 얼어붙어 우박 핵을 만든다. 이 핵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주변의 과냉각된 물방울과 충돌하고 얼어붙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고 다양한 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승 기류가 더 이상 우박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박은 어느 계절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봄부터 가을 사이에 자주 발생한다.

이 시기에는 지표면이 가열되어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 상승 기류가 활발해져서 적란운 발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한 해 동안 대전의 평균 우박 일수는 약 1.3일이며, 봄철인 3~5월 사이의 월별 우박 일수는 평균 3.3일로 봄철에 가장 많은 우박이 내렸다. 봄부터 가을 사이는 농작물이 자라나는 시기로,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2023년 6월 경북, 충북 등 전국 곳곳에 우박이 내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의 피해 규모는 약 1,185ha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재해 연보에 의하면, 그해 우박에 의한 피해액은 약 22억 원이며, 그중 농작물 피해액이 약 15억 원으로 우박에 의한 피해 유형 중 농작물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이처럼 우박은 낮은 발생 빈도에 비해 큰 피해를 불러오며, 특히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우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기상 관측 장비인 기상레이더와 기상위성을 비롯한 지상 고층 관측 자료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대기 상태를 면밀히 관측하고,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우박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또한, 날씨누리과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우박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과 시간, 우박과 동반되는 악천후 관련 기상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우박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더불어 우박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우박이 발생했을 때는 건물 안이나 지하 주차장 등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대피하고, 실내로 피하기 어렵다면 가방이나 두꺼운 옷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몸을 웅크려야 한다.

운전 중에 우박을 만났다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가급적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우박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폭우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한 통의 문자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우리의 일상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여름의 집중호우는 더 갑작스럽고 거세졌으며,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국지성 강한 호우는 도심 침수, 산사태, 교통마비 등 다양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권에도 여름철에 시간당 50mm를 넘는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불과 한 시간 만에 도로와 하천이 잠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평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강수량, 즉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충남 서산의 경우, 최근 30년 사이 일강수량이 200.0mm 이상인 해는 274.5mm의 비가 내린 1999년을 포함해 5번 이지만, 2022년 209.6mm, 2023년 208.1mm, 2024년 221.8mm로 최근 3년간 일강수량이 20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통계자료는 집중호우의 강도가 최근 눈에 띄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도로 침수, 하천 범람, 주차장 및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이어지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예측과 대응 모두에 어려움을 주며, 빠르게 전개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경고와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사전에 미리 위험을 알려 개인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실시간 경고 시스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시간 동안 50mm의 비가 오고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의 강수량이 기록된 경우나, 1시간에 72mm의 비가 온 경우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자로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한 경고음을 동반해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2023년 수도권 지역에 처음 도입됐고, 작년에는 경북권과 전남권으로 확대되어 운영되었다.

2023년 8월 7일, 수도권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을 당시, 기상청은 오후 7시 22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3동 인근에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내려 침수 등 우려,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확인 바람’이라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당시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일대에서는 일부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빠른 경고와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에 힘입어, 대전지방 기상청도 올여름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강한 호우가 쏟아진 지역에 읍·면·동 단위로 상세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의 특정 지역에서 1시간 동안 50mm 이상의 비가 오고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을 기록하면, '인근 50mm/h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 우려'와 같은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된 문자가 전송된다.

작년 7월, 충남 논산에서는 시간당 84.0mm의 강한 비로 오피스텔이 침수됐고,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안에 고립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번 여름에는 충남권에서 시범 운영 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 발생 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며, 집중호우, 폭염 등은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재난 대응은 준비된 시스템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국지적인 위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술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하여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줄 것이다.

많은 비가 예보된 날, 도심 한복판에서, 하천 인근에서, 출퇴근길 위에서... 한 통의 문자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알림이 되길,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수단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폭염 속,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여름철 더위는
점점 강해지고,
평균 폭염일수 증가 추세

“앞으로 이틀간 대전광역시의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누군가는 ‘날이 무척 덥겠다’라고 생각하며 대비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이 정도야 늘 있던 일’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기온이라도 모두가 똑같이 느끼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저마다 더위를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만, 실제로 여름철 더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62개 관측지점에 대한 평균 폭염일수는 2022년 10.6일, 2023년 14.2일, 2024년 30.0일을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전국의 온열질환자 발생 수 역시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2024년 3,70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폭염(暴炎)’의 ‘폭’ 자가 사납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만큼, 폭염은 단순히 덥기만 한 날씨를 뜻하지 않는다. 폭염이 발생하면 고령층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농작물은 햇볕에 탈 수 있으며, 가축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도심, 농촌, 실내와 실외, 청년층과 노년층, 산업현장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기온이 몇 도까지 오르겠습니다.’와 같이 수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피해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일반인·산업근로자), 보건(취약계층), 농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향후 2일간 폭염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따른 위험 정도를 ‘관심-주의-경고-위험’의 4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함께 제공한다. 단순히 덥다거나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실용적인 기상정보이다.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다. 유익한 정보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상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노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과 인공지능(AI)스피커 등을 통해 행동 요령을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온에 취약한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 중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향예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소책자와 웹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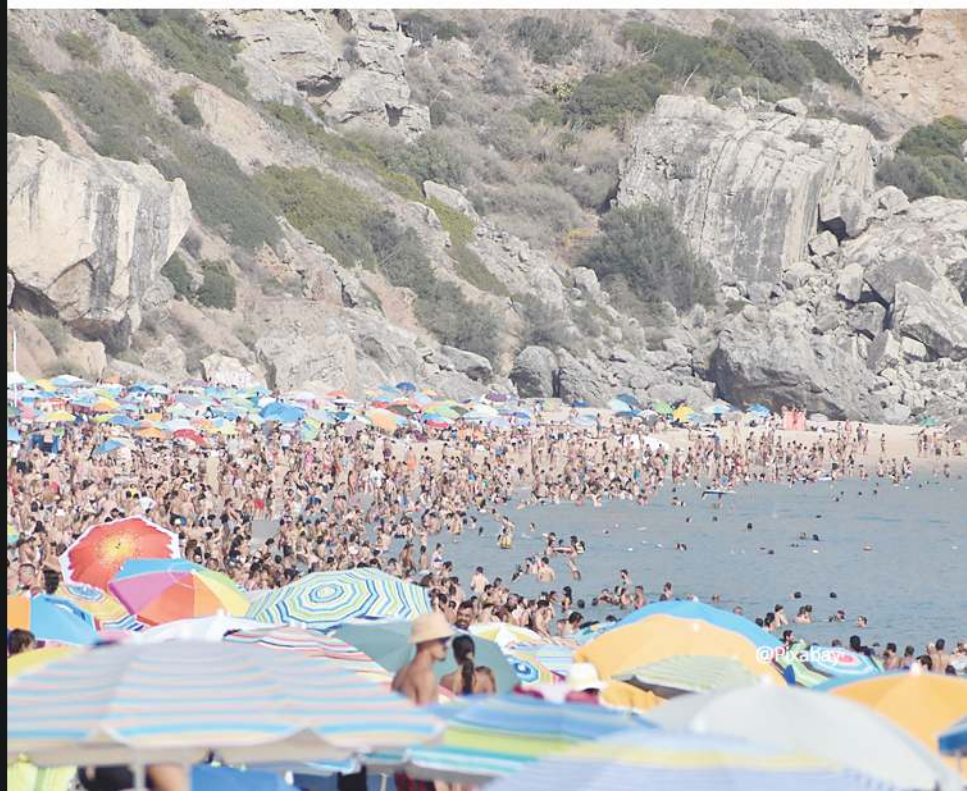
그리고 올여름에는 국민에게 조금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가 기상청을 통해 직접 SNS 앱 메시지로 폭염에 대한 예상 정보와 구어체로 된 알기 쉬운 행동 요령을 받고, 이 정보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공유하면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이를 통해 일상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더욱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자이자 정책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여름은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계절이다.

하지만 모두 함께 준비한다면 위험 요소들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예보는 볼 때보다 활용할 때 의미가 생긴다.

일상에서 폭염 영향예보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에서 활용해, 모두가 함께 안전한 여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5.3.1.~12.31.

대전지방기상청 「우리는 청렴핑」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청렴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청렴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청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별로 청렴 실천 다짐을 담은 별명을 만들어 메신저 대화명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지를 표현한다. 각 부서에서는 청렴마을과 청렴핑 캐릭터 그림을 제작해 사무실 입구에 게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 간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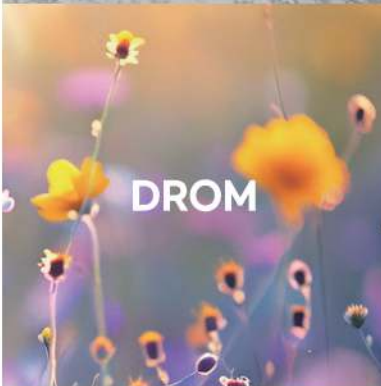


관측과 청렴나무



2025.3.7.~4.8.

충남북부앞바다 특정관리해역 지역민 현장방문



대전지방기상청은 작년 11월 25일부터 분리 운영 중인 태안·서산 북쪽, 당진 평수구역의 관계기관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3~4월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평수구역 이해도·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수렴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적절한 사후관리로 탄력적인 특보 운영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어업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3.20.

「세계기상의 날」 기념 행사

대전지방기상청은 3월 20일 2025년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오전에는 기상업무 유공자 포상, 청렴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시상, 오후에는 본청 주관 기념식 영상 시청이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청사 주변 정화 활동인 ‘청사사랑 환경지킴이’와 사무실 인근에서 진행된 ‘캐치캐치 보물찾기’ 게임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3.13.

2025년도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북극렬비도에 위치한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의 업무 현황을 관계기관에 소개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태안군청, 한국환경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총 11인이 참석하여 격렬비열도항 추진계획, 격렬비열도의 날(7.4.) 행사 계획 을 공유하고 기상관측기지 운영 여건 개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5.3.20.~3.23.

2025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 기상관측차량 행사 참여

대전지방기상청은 3월 20일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 기상관측차량을 지원하였다. 기상관측차량은 호우, 태풍 등 위험기상을 감시하고,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층기상관측을 시연하고 첨단 관측장비 및 차량을 전시하여 기상 관측의 중요성과 기술적 진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기상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5.3.21.

세계기상의 날 기념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회」 공동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기후변화 과학 및 정책 공유를 통한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제1차 기후협의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DCC 대전컨벤션센터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계기관 기후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위한 정부·지자체 R&D 정책 방향’, ‘충남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사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과학의 이해’ 등의 주제 발표와 의견 교류로써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5.3.27.~3.28.

관측자료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기상 설명회」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시범운영에 따라 관측기관의 기상자료 공동활용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상설명회를 운영하였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지역 기상자료 공동 활용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연계 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소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3.26.

제 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대전지방기상청은 제 80회 식목일을 맞아 대전시청, 서구청, 유성구청, 대전도시공사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직원 10여 명이 행사에 동참하여 갑천생태호수공원 일대에 홍가시 묘목을 식재하였으며, 행사 후 배부된 매실, 모과 등 과실나무 묘목과 꽃묘는 대전(청) 청사 내에 심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직원들의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25.3.31.~4.5.

대전지방기상청

벚꽃 개화 정보 제공 서비스 시범운영

대전지방기상청

벚꽃 개화정보

대전지방기상청은 계절의 빠르고 늦음의 지역적인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관측하고 통계 분석하여 기후 변화의 추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벚꽃 개화 등의 **계절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 벚나무(표준목) **평년값(1991~2020년)**

발아	개화	만발
3.25.	4.4.	4.5.

대전지방기상청 벚나무(표준목) **계절관측값(2020~2024년)**

연도	발아	개화	만발
2024	3.15.	3.30.	4. 2.
2023	3.19.	3.22.	3.27.
2022	3.19.	3.31.	4. 5.
2021	3.11.	3.23.	3.26.
2020	3.12.	3.24.	3.29.

발아

개화

만발

3월26일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대전(청) 벚꽃 개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에 위치한 벚나무는 대전의 벚나무 개화 현황을 대표하며, 발아부터 만발에 이르기까지의 실황을 매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올해 개화(4.1.) 및 만발(4.5.)을 관측했으며, 작년보다 개화는 2일 늦었고, 만발은 3일 늦게 관측되었다.

2025.4.7.

2025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5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논산시·전북혁신도시 축산냄새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전주기상지청, 수요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 조건에 따른 축산냄새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어 실효성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4.7.

「대전지방기상청 지역기상센터」 개소식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권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범운영을 대비하여 긴급재난 문자, 비상근무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현업근무자 업무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다.

사무환경 개선공사가 완료 됨에 따라 ‘대전지방기상청 지역기상센터 개소식’을 4월 7일(월) 실시하였다. 개소식을 통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범운영과 예·특보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다짐하였다.





2025.4.17.~4.19.

「사이언스 페스티벌」 기상·기후 홍보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과학축제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기상·기후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미래세대의 기후변화과학 개념 이해와 탄소중립 실천 행동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기후변화과학 주제 홍보패널을 설치하여 교육하고, 나만의 이끼 액자 만들기 체험활동을 수행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기상·기후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의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이해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2025.4.22.~5.14.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 현장답사

대전지방기상청은 2025년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의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의 예보·관측 지점과 위험기상 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4~5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예보지역에 대한 지형 특성과 환경을 파악하고 위험기상 피해지역에 대한 취약요인 등을 분석하여 예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위험기상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4.25.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온라인 기상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 관계기관 방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기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방재기상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올해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충남권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방재담당자들의 기상이해도를 증진 시키고, 방재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4.29.

관측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측기술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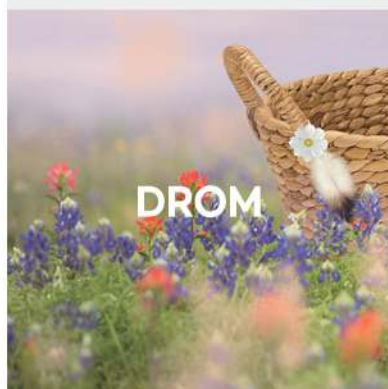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자료의 신뢰도 제고와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전달체계 이해를 위해 관측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장애 발생 빈도수가 높은 장비(온·습도계, 풍향·풍속계 등 7종)를 대상으로 대응 가이드를 제작·공유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CBS 실무 교육 및 관측업무의 중요성 등 교육을 통해 관측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5.4.29.

대전지방기상청 「기상·기후자료 사용자 매뉴얼」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금강유역 물관리 관련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기후자료 사용자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기상·기후자료 수집 및 활용 방법과 기후위기 감시·예측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기상·기후자료 오사용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오적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자체에서 정확한 기상·기후자료를 활용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2025.4.29.~4.30.

대전지방기상청 청렴·소통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북 군산시에서 청렴·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건강하고 활기찬 청렴문화 조성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34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첫 날에는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운영 소개 및 충청남도 관측자료 공동활용 계획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공무원 복무제도 및 징계사례 강의 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관람하며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25.5.1.~5.16.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시범운영을 위한 세미나 및 전담인력 교육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 09시부터 충남권에 시범운영되는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사전 준비 일환으로 전직원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매뉴얼과 저기압, 정체전선, 장비장애 발생 등 과거 호우 사례 유형별 긴급재난문자 직접발송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예보와 관측 기본교육을 통한 숙련도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25.5.2.

2025년도 상반기 관측업무 점검 및 기술지도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정책과와 2025년도 상반기 관측업무 점검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하였다. 기상관측장비의 작동여부와 유지·보수 관리상태 및 관측차량 운영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관측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관측업무 및 관측차량을 수행·운영 하며 발생하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관측업무능력 향상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5.5.7.

2024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 발간 및 배포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적 기후특성을 분석·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향상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를 발간하고 충남권 기후·환경 관련 부서 총 39곳을 대상으로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하였다. 연·계절별 기후특성 및 이상기후 현황, 해양 기후특성 분석을 담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 최근 기후현황과 이상기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2025.5.8.~5.31.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어린이날 행사 및 가족의 달 이벤트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였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날씨현상, 기상 캐스터, 기후변화 등 기상과학에 대한 상시 운영 전시관과 함께 ‘충남기상 어드벤처 월드!’를 주제로 과학관 야외 광장에서 다양한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31일까지 ‘3대 가족 방문 이벤트’를 진행하며, 3대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등)이 모두 방문하면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 후 사진 퍼즐 기념품을 만들어 주었다.



2025.5.15.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15일(목)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여름철 위험기상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충남권에 시범운영 예정인 호우 긴급재난문자(CBS)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여름철 방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충남권 기상재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2025.5.21.

2025년 상반기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현지 합동 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관계기관과 유지보수업체 간의 현장 소통 및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현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하였다. 이번 점검에 운영지원과, 관측정책과, 위성운영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유지보수업체 등이 참석하여 '25년 사업 집행실적 및 추진사업 등을 점검하고 교체 대상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전기 배선 등의 환경 조사를 하면서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



2025.5.21.

관측자료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2025년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 워크숍」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기관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금번 워크숍을 통해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관측자료 공동활용에 대한 기관별 현안과 의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관측기관과 협력하여 관측자료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5.22.

대전지방기상청장 KBS 1TV 「충청은 오늘」 방송 출연

대전지방기상청 청장(박경희)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행에 맞춰 지역 시민들이 알아야 할 여름철 안전에 대해 KBS1TV 충청은 오늘 방송에 출연하여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녹화는 인터뷰 형식으로 5월 14일에 이뤄졌고, 방송 송출은 5월 22일에 진행되었다. 주요 녹화내용은 여름철 주요 기상현상인 장마, 집중호우, 폭염에 대해 이야기하고, 올해 시범운영 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말미에서 이번 장마철에도 극한적 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험기상 예상 시 기상청의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어 집중호우 피해가 없는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당부했다.



2025.5.28.

대전 · 세종 · 충남 「기상기후데이터 융합활용세미나 및 소통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 · 세종 · 충남 소재지 기상기업과 공주대학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협회 등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는 관 · 학 · 산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활용세미나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2024년 대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작 발표가 있었고, 소통간담회에서는 기상기업의 건의사항을 듣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기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25.5.29.

대전·세종·충남지역 「언론인 소통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29일(목) 충남권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언론인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충남권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범운영, 폭염 영향예보 취약계층 대상 직접전달 서비스 등 2025년 달라지는 기상정책과 충남권 여름철 기후이슈 분석결과와 여름철(6~8월) 기상전망을 공유하였다. 위험기상 정보가 충남권 지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기상청과 언론과의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극값 및 계절관측

3

2025
MARCH

3월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24. 천안 4위 15.8℃, 금산 4위 16.5℃, 세종 4위 15.4℃
 3.26. 홍성 1위 17.2℃, 세종 1위 17.2℃, 대전 2위 18.5℃, 금산 2위 17.1℃
 보령 4위 16.2℃, 부여 4위 16.5℃

3월 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23. 대전 2위 26.4℃, 부여 4위 25.2℃, 금산 4위 26.2℃, 천안 5위 25.1℃
 3.25. 대전 4위 25.8℃, 홍성 4위 23.2℃, 천안 4위 25.4℃, 금산 5위 25.9℃
 3.26. 대전 1위 29.3℃, 홍성 1위 27.5℃, 천안 1위 26.9℃, 보령 1위 26.8℃
 부여 1위 27.8℃, 금산 1위 28.6℃, 세종 1위 27.1℃, 서산 2위 24.3℃

3월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25. 천안 1위 21.4m/s, 홍성 2위 17.3m/s, 금산 5위 16.1m/s

3월 중순 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14. 보령 3위 21.2℃, 세종 4위 19.7℃, 홍성 5위 19.3℃

3월 중순 최심신적설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18. 대전 5위 3.5cm

3월 하순 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24. 홍성 1위 10.5℃, 세종 1위 10.8℃, 천안 3위 9.7℃, 대전 4위 12.2℃



3월 하순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24. 천안 3위 15.8℃, 금산 3위 16.5℃, 세종 3위 15.4℃
- 3.26. 대전 1위 18.5℃, 홍성 1위 17.2℃, 세종 1위 17.2℃, 보령 2위 16.2℃
부여 2위 16.3℃, 금산 2위 17.1℃, 서산 5위 14.2℃, 천안 5위 15.3℃
- 3.27. 금산 4위 16.4℃, 세종 4위 15.0℃

3월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25. 천안 1위 21.4m/s, 금산 2위 16.1m/s, 보령 4위 17.6m/s

4월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4.17. 금산 2위 21.8℃, 대전 5위 21.8℃, 천안 5위 21.2℃
- 4.18. 세종 4위 20.4℃, 홍성 4위 18.9℃, 금산 5위 21.0℃

4월 중순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4.17. 금산 2위 15.3℃, 천안 3위 14.5℃, 서산 3위 13.7℃
- 4.18. 세종 1위 15.8℃, 홍성 1위 14.9℃, 대전 2위 17.4℃, 천안 2위 15.7℃
- 4.20. 금산 5위 14.8℃

4월 중순 일평균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4.13. 천안 2위 4.4℃, 세종 2위 5.3℃, 홍성 2위 5.4℃

4.14. 세종 1위 5.0℃, 홍성 1위 5.2℃, 대전 2위 5.1℃, 천안 4위 4.9℃

4월 중순 일최고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4.14. 홍성 1위 8.1℃, 세종 1위 8.9℃, 부여 2위 8.9℃, 서산 3위 7.4℃
대전 3위 9.2℃, 천안 3위 8.1℃, 보령 5위 8.5℃

4월 중순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4.13. 세종 1위 13.2m/s, 천안 3위 17.2m/s, 홍성 3위 16.8m/s

5월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5.20. 세종 2위 24.0℃, 홍성 3위 23.4℃, 금산 3위 24.6℃, 대전 4위 25.4℃

5.21. 천안 2위 24.6℃, 대전 3위 25.5℃, 부여 4위 24.4℃, 금산 4위 24.5℃

5월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5.20. 세종 2위 20.0℃, 홍성 3위 19.7℃, 천안 3위 20.4℃, 보령 5위 19.0℃

5.21. 대전 3위 20.9℃, 서산 4위 18.8℃, 보령 4위 19.0℃, 금산 5위 18.3℃

5월 10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5.1. 대전 4위 8.3mm, 보령 4위 9.4mm

5월 상순 일평균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5.3. 세종 1위 9.7℃, 홍성 1위 10.4℃, 대전 2위 10.5℃, 서산 5위 10.1℃

5.5. 홍성 3위 11.7℃, 세종 3위 11.0℃, 천안 5위 10.4℃

5월 상순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5.1. 보령 3위 15.8m/s

5월 상순 1시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5.1. 보령 2위 21.4mm, 세종 3위 7.7mm, 홍성 4위 6.8mm, 대전 5위 14.5mm
천안 5위 10.5mm

5월 중순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5.20. 금산 1위 31.8℃, 대전 2위 31.5℃, 세종 3위 29.9℃

전체년도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3.25. 천안 4위 21.4m/s, 세종 5위 15.0m/s

기후계절

2024년 마지막 눈	2025.4.13. (작년대비 41일 늦음, 평년대비 26일 늦음)
2024년 마지막 얼음	2025.4.1. (작년대비 11일 늦음, 평년대비 1일 빠름)
2024년 마지막 서리	2025.4.3. (작년대비 3일 늦음, 평년대비 1일 빠름)
2024년 마지막 관설	2025.3.18. (작년대비 53일 늦음, 평년대비 14일 늦음)

동물계절

나비초견	3.11. (작년대비 7일 빠름, 평년대비 27일 빠름)
배꾸기 초성	5.12. (작년대비 42일 늦음, 평년대비 6일 빠름)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2025년도 식물계절관측(봄꽃) 현황

개나리



발아

- 3월 20일
- 작년대비 5일 늦음
- 평년대비 2일 늦음



개화

- 3월 24일
- 작년대비 4일 늦음
- 평년대비 2일 빠름



만발

- 3월 26일
- 작년대비 1일 늦음
- 평년대비 5일 빠름

진달래



발아

- 3월 17일
- 작년대비 11일 늦음
- 평년대비 2일 빠름



개화

- 3월 24일
- 작년대비 7일 늦음
- 평년대비 5일 빠름



만발

- 3월 27일
- 작년대비 6일 늦음
- 평년대비 6일 빠름





- 3월 6일 촬영
- 구름조금 / 6.6℃



- 4월 3일 촬영
- 구름조금 / 9.0℃
- 작년대비 1일 늦음



- 4월 7일 촬영
- 맑음 / 14.6℃
- 작년대비 2일 늦음

※ 벚꽃 군락단지 관측은 2017년부터 신탄진에서 계룡산으로 변경



- 4월 10일
- 작년대비 1일 늦음
- 평년대비 4일 빠름



- 5월 1일
- 작년대비 4일 늦음
- 평년대비 6일 빠름



- 5월 6일
- 작년대비 5일 늦음
- 평년대비 6일 빠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전자문서(PDF)로
무료 발급 받으세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5. 5.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2. AWS(40소)

정림(378),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웅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